



濁流清論

제11호 2010년 12월 7일

발행인 : 박영무 / 편집 : 편집위원회

<알려드립니다>

◇ 현수막 시위

1) 교문 앞 일인 시위가 매일 아침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일시 : 월~금, 오전 8:30~9:15 까지
- 장소 : 교문 앞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2) 울곡관 시위

- 일시 : 월~금, 11시 45분
- 장소 : 울곡관 1층 로비

◇ 전체 교수 투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차기 총
장 선임안> 관련 전체 교수 투표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의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보낼 곳은 교수회. 이메일
(makim@ajou.ac.kr)로 보내주시
기 바랍니다.

< 목 차 >

솔밭에서 : 권두언	1
총장 略史	3
93년 총장 후보 추대 및 임명동의 과정, 95년 총장 임명동의 과정	4
12대 서문호 총장 선출 과정을...	6
이수훈 총장 선임 경과 및 결과	8
대학교수로 산다는 것	11
무책임과 책임자가 할 게를 지는 불법...	12
소식	13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15
편집위원회 : 이순일(편집책임), 강명구, 구형건, 김혜선, 이재호, 한호	16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편집위원회

권두언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총장직무대행 체제가 두 학기나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사태의
해결을 위해 차기 총장의 선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10년여 동안의 대학위상의
추락은 많은 부분 대학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총장'을
선임하는 데 실패한 것에 큰 원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면한 또 한 번의 총장선임
에 대해 대학구성원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윤원석 이사장과 대우학원의 이사진은 '총장선임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라는 공허한
주장만 계속 내세울 뿐 한 번도 좋은 총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매번 반복되는 총장선임과 관련한 대학구성원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총장선임과 관련한 제도를 미리 만들고, 우수한 총장후보들에 대한 자료를 축
적해 가는 노력을 전혀 해오고 있지 않다. 답답한 마음에 대학의 주요 구성요소들이 미
리 합의안을 만들어 재단에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총장후보추천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
안한 것도 묵살하고 시간만 흘러 보내다가, 다시 한 번 총장선임과 관련한 혼란과 논란
을 초래하였다.

재단은 그나마 동문회장이 중재에 나서자 마지못해 총장후보추천에 대해 협의하는 시
늬를 하더니, 이도 마무리 짓지 않고 일방적으로 총장후보추천 방법을 결정하고 공지하
였다. 재단이 일방적으로 고지한 안은 모든 지원 후보에 대해 추천위원들이 3기명 투표
를 하고 득표수에 따라 후보 3인을 추천하며, 재단이 이를 거부하면 차순위 3명을 자동
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다. 이는 예전에 시행하였던 추천위원 2/3 또는 3/4 이상의 동의
를 얻어야 추천이 가능하다는 부적격 후보자들을 걸러낼 최소한의

장지도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원후보가 많고 추천위원들의 표가 분산되는 경우에는, 심지어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추천위원들로부터만 긍정적 평가를 받은 후보를 재단이 총장으로 뽑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재단의 총장임명권을 존중하여 3인의 1차 추천 후보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거부 후에는 차순위자들을 무조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조항이다. 재단대표 3인이 들어가 있는 추천위원회에서 이미 1차 추천된 후보들에 비해 자격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후순위 후보들을 추천하도록 강제하여 그 중에서 총장을 선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굳이 좋은 총장을 뽑을 생각이 없거나, 재단이 내정한 후보가 1순위 추천 3인에 포함되지 못하면 거부권을 통하여 재단의 의사를 관철하겠다는 생각이 없이는 고집할 까닭이 없는 조항이다.

이에 더해 이사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총장후보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단과대학의 추천위원선임권을 박탈하여 이미 추천위원을 선임한 타 단과대학에서 더 뽑도록 한다는 것은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이다. 흔히 독재자들이 자신에 대해 저항하는 국민들은 배제하고 자신의 지지층만 가지고 체제를 유지할 때나 쓰는 이런 수법이 치유하기 어려운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런 방식으로 이사장에 동조하는 일부 대학만을 가지고 구성된다면 아주대는 아주 오랜 기간 해소하기 어려운 분열과 반목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지난 시기를 되짚어 보면 우리대학은 교수협의회 체제에서도 총장후보추천 또는 총장임명동의의 형태로 총장선임과정에 교수들의 의사를 반영해 왔다. 제5대 김효규 총장의 선임과정에서는 교수협의회가 총장후보 추대 및 임명동의 투표를 주도하였으며, 재단도 17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추대위원회에 4명의 위원을 파견하고 김준엽 이사장과 김우중 회장이 직접 총장후보추대위원들을 면담할 정도로 협조적이었다. 김덕중 제6대 총장의 선임 과정에서도 재단(김준엽 이사장)이 총장임명동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수협의회가 총장임명동의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윤원석 이사장 부임 후에 재단이 일방적인 총장선임에 나서며 우리대학은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김덕중 총장의 제7대 증임과 입각을 위한 4개월만의 사임, 제8대 이호영 총장의 선임과 7개월 단명 재직, 김덕중 씨의 제9대 총장 복귀의 어지러운 과정이 재단의 독주 하에 벌어진 것이다.

김덕중 총장의 무리한 복귀는 교수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결국 1년 4개월 후의 사퇴로 이어졌으며, 이후 재단이 총장선임에 즉각 나서지 않음에 따라 우리대학은 9개월여의 총장직무대행 시기를 거치게 되었다. 제10대 오명 총장은 교수협의회 주도로 총장직무대행과 교내의 제 단체들이 합의한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안을 거부하고 재단이 일방적으로 구성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서이지만, 교수들이 추천한 후보가 선임된 사례이다. 오명총장이 부총리로 입각하자, 재단은 제11대 박재운 총장을 다시 일방적으로 선임하였다. 교수협의회는 이에 임명동의투표를 실시하였고, 교수들의 연구실을 일일이 찾다니며 인사를 하고도 겨우 과반수를 넘겨 임명동의를 받은 박재운 총장은 결국 2년여 후에 불미스러운 사유로 조기 사임하게 되었다. 그나마 교수협회의 추천과정을 거쳐 선임된 서문호 제12대 총장이 임기를 다 마치며 따라 반복된 총장선임 실패의 고리를 벗어나는 듯 보이던 우리대학은, 재단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이수훈 제13대 총장 선임이 18일만의 사임으로 마무리된 후에 다시 한 번 두 학기에 걸친 총장직무대행의 비정상적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간단히 되짚어 본 바와 같이 총장후보추천 또는 총장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 총장들은 비교적 문제없이 총장직을 수행하였으며, 학교를 발전시키고 위상을 높이는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통한 교내구성원들의 동의나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확보하지 못한 총장들은 대부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에 퇴진할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거나, 재임 중 만든 것으로 판명되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불행한 경험은 반드시 반복되는 법이다. 아주대학이 부적격 총장 또는 대학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총장을 선임하여 다시 한 번 혼돈과 쇠락의 시기를 거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총장 略史

< 역대 이사장 >

성명	재임기간	비고
박창원	73. 03. 01 ~ 77. 03. 20	유신학원
박충훈	77. 03. 21 ~ 89. 04. 17	
김준엽	89. 04. 19 ~ 99. 01. 27	
윤원석	99. 01. 27 ~ 현재	1차 임기 만료: 05. 04. 18

< 역대 총장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비고
초대학장	김현남	73. 02. 05 ~ 76. 02. 06	
제2대학장	이민재	76. 06. 11 ~ 77. 03. 30	
제3대학장	이한빈	77. 03. 31 ~ 79. 12. 15	
제4대학장서리	지응업	79. 12. 16 ~ 81. 02. 28	
총장직무대리	지응업	81. 03. 01 ~ 81. 08. 23	
초대총장	이용희	81. 08. 24 ~ 82. 09. 21	
제2대총장	나옹배	82. 09. 22 ~ 85. 02. 25	
제3,4,5대총장	김효규	85. 02. 26 ~ 95. 02. 25	후보추대/임명동의 5대 임기 전 사임
제6,7대총장	김덕중	95. 02. 26 ~ 99. 06. 28	총장 임명동의 7대 임기 전 사임
제8대총장	이호영	99. 06. 29 ~ 00. 01. 31	임기 전 사임
제9대총장	김덕중	00. 02. 01 ~ 01. 05. 31	재단 일방적 강행 임기 전 사임
총장직무대리/교학부총장	김철	01. 06. 01 ~ 02. 03. 14	직무대리
제10대총장	오 명	02. 03. 21 ~ 04. 01. 08	재단주도 추천위 임기 전 사임
제11대총장	박재운	04. 01. 09 ~ 06. 02. 28	재단후보/임명동의 임기 전 사임
제12대총장	서문호	06. 03. 01 ~ 10. 02. 28	
제13대총장	이수훈	10. 03. 01 ~ 10. 03. 19	재단 일방적 강행 임기 전 사임
총장직무대리/교학부총장	박종구	10. 03. 22 ~ 현재	직무대리

● 김준엽 이사장을 윤원석 이사장으로 교체한 것과 제8대 이호영 총장을 밀어내고 제9대 김덕중 총장이 복귀한 것은 아주대학이 (주)대우에 1017억원의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뒤처리하는 일련의 과정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 됨.

- 1998년 11월 (주)대우에 1017억원 어음 발행 (김준엽 이사장, 김덕중 총장)

- 1999년 2월 상기 어음 만기일 2000년 3월 31일로 연장 (윤원석 이사장, 김덕중 총장)

- 1999년 8월 21일 상기 어음 중 388억원 상당을 대우계열 사 어음으로 대체. 잔여 어음 628억은 동양종금(217억원)과 한국종금(412억원)이 보관 (윤원석 이사장, 김덕중 총장)

- 2000년 3월 28일 교육부에 ‘동양종금으로부터 217억원, 한국종금으로부터 412억원을 차입한다’는 내용의 기재 신청

(윤원석 이사장, 김덕중 총장)

● 1985년 이래 총장재임 기록을 살펴보면 3.4.6.12대 총장만이 임기를 다 채웠음. 제5대 임기를 1년 남기고 자의에 따라 사퇴한 김효규 총장과 입각을 위해 사임한 7대와 10대 총장을 제외하더라도, 4명의 총장(8대, 9대, 11대, 13대)이 불미스러운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며, 이에 더해 총장을 제 때 선임하지 못해 두 명의 총장직무대리가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본교의 총장선임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 함.

● 전임총장들의 잇단 불명에 퇴진은 윤원석 이사장 체제 하에서 반복되고 있음. 윤원석 이사장은 대학구성원들의 총장선임과정 참여에 대한 거부를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대학구성원들의 참여 배제와 총장들의 불명에 조기 퇴진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

● 제5대 김효규 총장 선임과 관련한 ‘총장후보 추대 및 임명동의’ 및 제6대 김덕중 총장 선임과 관련한 ‘임명동의’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평가는 송현호 교수님의 기고문 참조.

● 제10대 오명총장 선임의 경우에는, 대학의 주요 구성요소(교수협의회, 본교와 병원의 양대 노동조합, 총동문회, 총학생회)들이 합의하고 대학본부도 수용한(김철 당시 총장직무대행도 합의서명에 동참)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절차’를 재단이 거부하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총장후보 선출방안을 발표하였음. 이후 교수협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추천위원 중 한 명의 교수가 제안한 오명 후보를 재단이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제10대 오명총장이 선임되었음.

● 제12대 서문호 총장의 선임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평가는 강명구 교수님의 기고문 참조.

● 제13대 이수훈 총장의 선임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평가는 이재호 교수님의 기고문 참조.

93년 총장 후보 추대 및 임명동의 과정

인문대학 송현호 교수

제5대 김효규 총장 후보추대 및 임명동의 과정

김효규 총장의 중임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1992년 2월 11일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총장선출방식연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4월 총장선출방법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어떤 방식으로든 교수들이 총장 선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결집이었다. 특위에서는 4개의 안을 마련하여 7월 2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85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여 1안) 입후보후선출방식 7표, 2안) 교황식 선출방식 7표, 3안) 임명동의투표 4표, 4) 총장추대위원회선출 67표로 나타나 4안)을 새로운 총장 선출 방식으로 확정하였다. 9월 22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총장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각 분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10월 15일에서 10월 30일 사이에 총장추대위원을 선출하였다. 공대분회에서 3인(이상혁, 김철, 홍석교), 경영대분회에서 2인(조병주 이주희), 인문대분회에서 2인(김철자, 송현호), 사회대분회에서 2인(이화수, 조미경), 자연대분회에서 2인(한보섭, 신희균), 의대분회에서 2인(이성낙, 문창현)의 위원을 선출하여 13인의 교수위원 명단을 10월 30일 재단에 통보하였다. 재단에서는 4인(김입삼, 이석희, 최형섭, 황종익)의 위원을 추천하였다.

11월 13일 16시부터 제1차 총장 추대위원회 교수추대위원 간담회가 교협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총장추대위원회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장으로는 한보섭 교수가 선임되고 위원에는 이상혁, 조병주, 송현호 교수가 선임되었다. 실무위원들은 타 대학 총장 선출 자료를 수집하고,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1월 16일 12시부터 제2차 총장추대위원회 교수추대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완하여 11월 27일 14시부터 공대학장실에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발대식 진행, 후보 자격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12월 1일 13시 30분부터 교협사무실에서 개최된 제3차 총장 추대위원회 교수추대위원 간담회에서 실무위원회 논의 사항 보고 및 총장 후보 자격 기준 설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12월 4일 12시부터 제4차 총장 추대위원회 교수추대위원 간담회를 동보성에서 갖고 교수추대위원측의 총장 후보 자격 기준 등을 확정했다.

12월 4일 14시부터 제1차 총장추대위원회 발대식 및 전체 회의가 대우재단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에 한보섭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에 김철, 황종익, 송현호 위원을 선출하고, 일정 및 규정에 대해 심의했다. 총장후보추천서는 12월 15일까지 총장추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하고, 추대위원회의 논의 사항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

람직한 총장상과 학교 발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12월 16일 소위원회 모임이 한보섭 교수연구실에서 열렸다. 여기에서는 주로 제2차 총장추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총장후보 자격 가이드 라인**과 **총장후보 결정 방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12월 21일 제2차 총장추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 경영대 추대위원의 교체(조병주->용세중), 2) 최형섭 위원의 총장후보 사퇴, 3) 가이드 라인 등에 대해 논의한 다음 총장후보 선출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장후보 결정 방법은 1인 1투표로 하여 김효규, 목영일, 김덕중, 정근모, 김준엽 후보를 2차 심사 대상 후보로 확정했다. 총장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원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결정했다. 소견 발표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추대위원으로 한정하되, 최종 후보는 14표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3회까지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여기에서 14표는 재단 비토권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재적과반수안이 변경된 것이다.**

12월 28일 제3차 총장 후보 추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1) 김덕중, 김준엽, 정근모 후보의 사퇴, 2) 목영일 후보의 소견 발표, 3) 재단의 부총장 신설 제안 등을 처리했다. 투표 연기안이 제기되었지만 부결되어 투표에 들어갔다. 1차 투표 결과는 김효규 후보 9표, 목영일 후보 5표로 나타났다. 즉시 2차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투표를 연기하자는 긴급 제안이 받아들여져 일정이 연기되었다.** 추후 일정은 소위원회에서 조율하기로 했다.

1993년 1월 11일 소위원회가 열려 재단의 입장, 의료계의 사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의결 조율을 하여 **1월 19일에 총장추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아주대에 대한 관심 제고와 대우임원들의 아주대에 대한 재인식 등을 위해 김우중 회장과 면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의거 1월 13일 김우중 회장 초청으로 대우 임원들과 추대위원 그리고 보직교수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김우중 회장은 아주대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약속하면서 의료원 개원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다.**

1월 19일 제4차 총장추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1) 목영일 후보 사퇴, 2) 의료계의 사정 청취, 3) 1월 13일 간담회에서의 김우중 회장의 간곡한 부탁 재확인, 4) 김우중 회장과 전제교수들과의 간담회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결선투표를 연기하였다. 투표연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보섭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월 3일 제5차 추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1) 김효규 총

장후보의 소견 발표 기회 부여 여부, 2) 임기 2년 안, 3) 의과대학의 입장 설명 등을 듣고 투표를 연기하여 2월 12일 소견 발표를 듣고 2월 15일 투표하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연기 투표는 12대 5로 가결되었다.

2월 10일 소위원회 모임이 있었고, 2월 15일 13시 30분부터 대우 재단 제2세미나실에서 제6차 총장추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토의 없이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찬성 15표, 반대 2표로 김효규 후보가 총장 후보로 추대되었다. **교수협 의회 임명동의안 투표에서도 무난히 통과되어 김효규 후보는 1993년 3월 1일부로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총장추대위원회는 임명권자의 권한도 존중하고 대학구성원의 의견도 반영하여 최선의 인물을 총장으로 추대하는 데 그 기본 정신이 있었다. 교수측과 재단측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하여 어느 정도 합의한 상태에서 총장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총장 선출 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쌍방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다. 대학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격의 없는 논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총장 선출 후에 교수집단의 분열이나 파당의 우려가 희박했다. 추대위원 각자나 후보추천 집단이 다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참신하고 바람직한 인물을 다양하게 총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었다. **추대의 과정에서 재단 측에 교수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어서 언론이 트이고, 재단이 대학 발전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대위원의 참여 범위를 재단, 교수, 직원, 동창회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과 단과 대학별 위원수를 동수로 할 필요성 그리고 추대위원의 수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추대위원의 기능이 선출과 물색의 두 기능을 공유하고 있는 것과 물색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각 추대위원이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단과대학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에 국한된 것과 정족수 문제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하여 17표 가운데 14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무리라고 생각되었다. 추대보다는 비토권 보장에 치중한 감이 없지 않았다. 특히 추대위원회의 내규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대위원회가 가동되었기 때문에 짧은 일정 속에서 소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가 그러한 일을 했고, 또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고, 교수와 재단의 의견이 대립될 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나 제도(혹은 규정)가 없었다.

95년 총장 임명동의 과정

인문대학 송현호 교수

제6대 김덕중 총장 임명동의 과정

김효규 총장의 연임 임기가 9개월 정도 남은 1994년 3월 25일 힐튼 호텔에서 김준엽 이사장과 교협의장단이 모여 차기 총장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사장은 임명권자의 권한도 존중하고 대학구성원의 의견도 반영하여 최선의 인물을 총장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총장추대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는 재단이사회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사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총장선출특별위원회(임진수, 유병우, 계광열, 오기석, 송현호, 김수근)가 구성되었다.

4월 14일 제1차 총장선출특별위원회를 교협사무실에서 열고 위원회의 명칭과 일정을 확정하고 위원장에 임진수 교수를 선출했다. 5월 1일까지 분회별로 쟁점 사항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르기로 했다.

5월 2일 제2차 총장선출특별위원회가 교협사무실에서 열려 직원, 동창회의 참여 문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찬성 42표, 반대 154표, 기권 3표)와 추대위원회 인원수의 여론 조사결과(18인 이내 95표, 10인 이내 100표, 기권 2표)를 발표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성격이 선출이나, 물색이나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5월 10일 제3차 총장선출특별위원회를 교협사무실에서 의장을 참석시켜 일정을 확정했다. 총장 후보 선출안의 작성은 기존의 4개 안 가운데 1안(재단 2인, 교수 6인)과 2안(재단 4인, 교수 12인)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안이 압축되면 재단의 황종익 이사와의 협의하고 최종안을 교협 대표단이 이사장을 면담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5월 20일 제4차 총장선출특별위원회가 교협사무실에서 열려 기존의 제1안과 제2안을 토대로 쟁점 부분을 축소심의했다. 총장 후보는 2-4인으로 하고, 추대위원수는 교수 : 재단의 인원수를 12 : 4로 하되, 추후 재단과 협의하기로 했다. 임명 동의 투표는 재적 교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추대위원 활동 시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5월 23일 제5차 총장선출특별위원회가 교협사무실에서 열려 결정 사항을 축소심의했다. 그런데 직원노조와의 단체협

약서 건이 문제가 되어 5월 30일 교협 의장단 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교협의장단 회의에서는 그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고, 교협 간부회의를 소집하였다.

6월 2일 제6차 총장선출특별위원회 및 교협의장단 회의가 교협사무실에서 열려 노사협상안의 효력 여부, 이사장과의 과거 협의 내용, 수정된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총장 후보 추대위원회 구성에 노사협약서가 영향을 미칠 경우 책임자를 추궁하는 차원에서 부총장 불신임 결의안을 내기로 하고,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992년의 규칙이 살아 있음을 확인시키기로 했다.

6월 3일 14시부터 이사장과의 면담이 이사장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총장 후보 선출 규정(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1992년 안과 다른 점에 대한 질의와 보충 설명을 했다. 이사장은 직원들의 참여는 총장이나 부총장이 관여할 문제이지 재단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며, 교협이 대화를 하여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형식적으로는 재단에서 총장을 선출 및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내용적으로는 협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임명권이 재단에 있음을 강조하고 포항공대를 예로 들어 추대위원회가 아닌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요청했다.

6월 3일 교협 임원 회의가 교협사무실에서 열려 단체협약서가 총장후보 추대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책임을 추궁하기로 하고, 재단은 교수와 직원의 협의 및 타협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협에서는 당분간 직원노조와 직접 협의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단체 협약서 작성 시 학교 측 대표인 부총장이 교수들의 실질적 대변자임에도 교수 측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중요 사항 결정 시 교협과 상의하기로 하고도 상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경위를 따지고 책임을 묻기로 했다. 책임을 묻는 방법은 공개 질의서를 보내 해명케 하고,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책임을 물어 해임결의안을 내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6월 8일 16시 교협 평의회를 교협사무실에서 갖고, 총장선출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타 대학의 총장선출 시 직원들의 참여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장과 부총장 앞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로 하고 문

안 작성에 들어갔다.

6월 15일 11시부터 설명회가 개최되어 부총장이 직원을 총장 선출 시 참여시켜준다고 한 단체협약서는 절대로 교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교협은 끝까지 직원 참여를 반대했기 때문에 상의해도 의미가 없고, 교협을 단체 협상에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서 상의하지 않은 것임을 강변했다. 그러나 많은 이견이 제기되어 **6월 20일 부총장이 교협의장 앞으로 총장선출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공문을 보내왔다.**

8월 18일 18시부터 힐튼호텔에서 이사장과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은 총장 선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1) 차기 총장은 아주대 발전에만 최선을 다할 분이어야 한다. 2) 설립자, 이사회는 법대로 하자는 주장이다. 3) 직원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이다. 4) 여론은 직선제를 배격하고 재단에서 하라는 것이다. 5) 재단에 맡기든가, 다음과 같은 조건부 수정안 가운데 하나로 결정해 달라. (1) 명칭을 추천위원회로 해 달라. (2) 추천 위원은 전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3) 직원 대표를 참여시켜 달라. (전임 의장단과 약속, 단체협약서 고려) (4) 인원수 조정은 교협과 노조와 상의해 달라. (5) 제6조에 60세 미만, 지명도 있는 분, 아주대 발전에만 전념할 분의 사항을 추가해 달라. (6) 제7조의 인원수를 2-4인에서 3-4인으로 해라. (7) 제8조는 체계상 교협이 재단의 상위 기구이고, 직선제 폐단의 우려가 있고, 직원의 참여가 예상되니 삭제해 달라. 이사장의 입장은 과거 교협과 약속한 내용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격론이 일어났으나 의견 조율을 하지 못했다.

교협 임원회의에서 교수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9월 9일부로 의견서를 재단에 보냈다. 재단에서는 9월23일 이사회를 열고 추천위원회에서 전권을 갖되 '교협의 임명동의절차'는 받아들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협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리하여 10월 21일 재단에 보냈다.

1) 전체 교수회의에서 채택된 임명 동의 절차의 취지는 재단의 임명권은 충분히 존중하되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데에 있다. 더욱이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재단-교수간의 신뢰를 감안한다면 이 절차는 재단의 임명에 대한 교수들의 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군사정권의 정치적 목적이나 재단의 부당한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는 종전과 같은 변칙적인 총장 임명은 불가하다. 근년에 이르러서, 아주대학이 목표로 삼고 있는 T5 내의 대학들 및 경쟁상대로 간주되는 대학들 모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수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수들의 참여는 위 부정적인 요인들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총장의 학교 운영에 대하여 교수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또 운영 책임을 공유한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더 큰 것이다. 3) 임명 동의절차는 재단과 교수들 간의 상하위 관계를 염두에 둔 형식적인 문제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각도에서 보는 견해는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총장 후보자의 득표활동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하였으나 후보 선출이 아닌 단수 후보의 임명 동의 과정 중에서는 득표활동이 일어날 소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4) '94 노사 협약과 관련하여 2중의 임명 동의절차에 따른 혼란을 우려했다. 그러나 부총장도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총장 임명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학교 측과 노조 측의 합의 사항이니만큼 재단 측이 이에 구애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노사협약이 문제가 되어 임명 동의제가 불가하게 된다면 본 협약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금할 수가 없다. 5) 전체 교수들의 표결 결과에 대한 재단측의 해석은 본 교협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교협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다수결 원칙에 의거 교수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음을 양지하기 바란다.

재단과 교협의 협상은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교협은 **11월 28일 투표를 통해 임명동의안의 지지를 확인하고 2월 3일 교협정기총회에서 임명 동의 투표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재단에서는 임명동의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나 김덕중 후보의 이력서를 교협에 보내왔다. 교협에서는 원천관 240호, 교수협의회 사무실, 병원 2층 회의실 등 세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임명동의 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 결과는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나타났다.

93년 추대위원회 활동 평가에서 추대위원의 참여 범위를 재단, 교수, 직원, 동창회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추대위원회의 기능을 물색으로 할 것인가 선출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음에도 교수들의 설문 조사에 발목이 잡혀 교수협의회 안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파업 중이던 직원노조가 학교당국을 움직여 추대위원회의 참여를 보장 받게 되는 사태에 이르러 교협은 더 이상 다른 길을 찾을 수 없었다.

12대 서문호 총장 선출 과정을 돌아보다

사회과학대학 강명구 교수

모르는 척하고 받아 준 유일무이(唯一無二)의 암중모색

우선 한 마디 안 할 수 없고...

청탁 받은 원고를 작성 중에 재단이 2010년 11월 26일 자로 학교 홈페이지에 띄운 “제 14대 총장 후보자 추천안내”를 일별하니 우선 그 행태가 안하무인이다. 재단과 교수회가 추천 안을 놓고 한창 협상 중에 일언반구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재단 안을 전체교수 투표에 붙이려는 잘나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 교수회를 개똥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내용은 어떤가? 이만큼 봐주었으면 되었지 뭘 그리 보채냐? 재단이 알아서 할 터이니 너희 교수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바람만 잡아주면 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일곱 자로 줄여서 이야기 하자면 ‘교수들 엇 먹어라!’이다. (좀체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양해 바란다. 그래도 교수를 대하는 재단의 수준보다는 한 단계 더 예의를 갖춘 대우라는 점을 참작하시기 바란다.) 교수회가 피켓도 들고 집회도 하고 글도 쓰고 별짓을 다하여 굴욕적인 대접을 받으면서도 양보에 또 양보를 하면서 협상이라는 이름하에 요구한 것이 뭐 대다한 것도 아니다. 정말로 학교 잘되게 하려면 합심해서 여기 저기 공개적으로 알리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응모한 인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사를 리더로 뽑자는 것이다. 무슨 근거로? 대학은 학문 공동체라는 공공재(公共財)이니 구성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해야하지 않는가? 반면 재단 안을 보자면 되도록 적게 알리고 (보다 정확히는, 웬만하면 밖으로는 알리지 말고) 가장 재단 말 잘 듣는 인사를 이사장이 임명하자는 것이다. 무슨 근거로? 이거 내 학교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치 않은가? (물론 여기서 소유격 “내”의 실체는 설립자인지 그 대리인인 이사장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재단의 행태는 제 백성 굶기고 세습이나 해대는 작자가 연평도에 대고 뽕 뽕 대포 쏘 애꿎은 인명 축내는 것과 정도의 차는 있을지언정 논리구조상 크게 다를 바 없다면 지나친 주장일까? 재단 출연금도 제대로 출연하지 않아 강의실이 모자라고 그 결과 대학 본부가 교문 밖으로 피난해 있는데 (경제적 곤궁) 지난 10년간 6명의 총장을 마음대로 앉히고

(준 세습적 행태) 분식회계로 의심받는 무리한 투자로 없는 돈 날리고도 천연덕스럽게 학생들 등록금은 올린다.(등록금 대포) 가관을 하나 더 소개한다. 이 와중에 직무대행은 학생회에 선심 쓰듯 10억의 장학금 지급을 선처하시고 학생회는 감지덕지로 받는다. 교수회 현수막을 학생회 투표 독려 현수막으로 무례하게 가려 막은 치기(稚氣)의 발원지가 보이는 듯하다.

먼 과거부터 돌아보니...

온도 좀 오른 머리 식힐 겸 홈페이지 들어가 아주대 총장열전(總長列傳)을 둘러보니 그 내력이 참으로 복잡다단하다. 길지 않은 역사에 학장 3대에 총장이 총 13대이니 도합 16번의 대학 수장 교체가 있었던 셈이다. 이 산법에는 세 번의 직무대행 체제(지응업, 김철, 박종구)는 뻘 것이고 중임의 경우(3, 4, 5대 김효규 그리고 6, 7, 9대 김덕중¹⁾)는 산입(算入)한 것이다. 학술논문 쓰는 것 아니니 구체적 자료는 생략하고 몇 가지 특징만 아주 간략하게 살피자. 그래야 이 글의 논제인 서문호 체제의 시발을 객관적이고 비교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니 이르는 말이다.

우선 첫 번째로 서문호 체제 이전은 모두 외부 충원이었다. 서문호 체제의 출범은 아주대 역사 33년만에 처음 자충(自充) 총장의 역사를 새긴 것이다. 의미심장하다. 이용희 초대, 나옹배 2대, 10대 오명, 11대 박재운 모두 장관을 역임한 관료정치인 출신이다. 임시 대타체제인 8대 이호영을 논외로 친다면 관료 정치인 빼고는 친정(親政)체제다. 3,4,5대 김효규 체제는 병원 건립을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고 6, 7, 9대 김덕중 체제는 설립자의 친형이 직접 지휘한 체제이다. 두 번째로 서문호 체제는 김덕중, 김효규 두 친정 총장 체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4년 임기를 마친 체제이다. 짧게는 (물론 대타의 한계가 있지만) 이호영 체제 8개월부터 시작하여 1년의 이용희, 2년 반의 나옹배, 1년 10개월의 오명, 2년 1개월의 박재운 체제까지 외부 인사들은 자의든 타의든 2년 반을 채우지 못하였다. 한 마디로 서문호 체제는 아주대 역사상 처음으로 교내 교수가 총장이 되어 4년 임기를 다 채운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케이스다.

1) 6, 7대 김덕중 전 총장은 7대 총장직을 수행하던 중 사임하고 약 8개월 동안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그 사이 의대 이호영 교수에게 8대 총장을 임시로 맡겨 놓았다가 장관 사임 일주일 만에 이호영 총장의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빌어 9대 총장으로 복귀하였다. 물론 김덕중 씨는 코미디 쇼를 연출하다가 교수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퇴임 “당하는” 쓰라린 경험을 아주대 역사에 새겨 놓았다. 이런 면에 있어 김덕중 전 총장은 순박하기만 하였던 아주대 교수회를 단단하게 버려놓은 공훈(?)이 있다.

조금 눈치 빠른 독자라면 응당 의문이 뒤따를 것이다. 왜 철용성이던 재단이 속칭 ‘준(準) 거물급(?)’ 관료정치인 말고 교내 교수를 4년이나 총장을 시켰나?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 짐작에 머무는 것이지만 교내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아마도 전직 두 관료 정치인에게 텐 것이 아닌가 한다. 10대 오명 총장은 “직업이 고위직”이라는 우스개 소리 처럼 네 번의 장관과 두 번의 총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아주대 총장은 다음 관직인 과학 기술부 장관을 위한 징검다리였던 모양이다. 그 후 건대 총장을 거쳐 현재는 KAIST 이사장이다. 11대 박재운 총장은 기억도 새롭게 표절(그것도 논문이라면 그나마 낫다. 무슨 연설문을 통째로 베꼈다.)과 자질 시비(또 그 연장에서 재단과의 갈등)로 큰 혼란을 겪은 끝에 이 년을 갓 넘기고 자진 사퇴하였다. 요약하자면, 외부 충원의 경우 능력 좀 있다 싶으면 재단에 녹록치 않고 여차하면 출구전략을 택한다. 이름만 그럴듯한 외부 허명(虛名)의 경우, 출구전략이 부재하면서 재단 의중도 잘 헤아리지 않고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니 재단은 외부 충원에 델 수밖에 없고 대안으로 교내 충원 방식으로 눈을 돌렸다고 해석한다면 지나친 비약인가?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내부 충원

내부에서 총장을 고르면²⁾ 이점이 여럿이다. 내부 사정에 휘하니 적응기간도 줄어 들고 행정의 연속성도 보장된다. 대학의 지도자를 공동체가 제 스스로 가려내고 키우는 자치(自治) 즉, 스스로 다스림의 능력도 함양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문공동체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추출해 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잘 주어진다는 것이다. 대학을 키운다는 것이 뭘 별 것인가? 대학은 이른바 “사람 장사”이다. 즉, 교육과 연구라는 행위를 통해 인재를 고르고 키우는 곳이다. 이런 과정에 열정과 헌신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반면에 해악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줄서기와 편 가르기가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해악이다. 쉽게 말해 재단에 잘 보이려고 과잉충성을 해서 공동체에 폐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총장 되려고 편을 갈라 다투는 일이다. 민주주의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지칭하는 이른바 “분파의 해악(分派의 害惡: mischiefs of faction)”이다.³⁾

그러나 재단의 의중은 앞서 지적한 내부충원의 일반론적 장단점을 비껴간다. 대신 재단의 대학지배라는 목표를 위한 전략적 성격이 짙다. 큰 힘 들이지 않고 한 개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우선 내부 충원을 하면 위험성이 줄어든다. 교내 교수들은 대개 성향과 능력이 뻔히 알려진 사람들이다. 쉽게 얘기해 머리 큰 외부 인사들처럼 손쉽게 출구전략을 택할 처지가 못 된다. 게다가 총장 마친 후 교수자리로 되돌아갈 제도적 장치의 관건은 재단이 쥐고 있다. 다음으로 내부충원의 경우 교수사회의 대학 민주화 요구를 우회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를 취하게 되므로 저항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출마 대상자들 간의 묘한 알력도 교수사회가 제 스스로 역량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물론 재단은 법적으로는 결코 교수사회에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하여 교수사회가 몇 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모르는 척하고 그 중에서 한 명 고르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추천 후보 중에 입맛에 드는 후보가 없다면 무시하고 제 갈 길 가면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에 손 안 대고 코풀기이다. 12대 서문호 총장 선임 과정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다.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면...

우선 큰 윤곽부터 훑어보자. 당시에 재단이 교수협의회⁴⁾와 합의하여 총장선임안을 공고한 것은 아니었다. 재단은 재단대로 재단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었고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내 여러 단체들은 2002년에 합의된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절차(안)>에 따라 추천을 받았다. 그 결과 교협에만 지원서를 낸 후보자도 있었고 재단에만 낸 후보자도 있었고 간혹은 양쪽 다 낸 사람도 있었다. 그 외에 재단에만 낼 수밖에 없음을 설명한 후보자, 교협 일차 심사에서 탈락하자 재단에 다시 응모한 후보자 등 다양한 부류의 후보자가 있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 교협은 교협안에 따라 각 대학에서 선출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들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정견발표 및 인터뷰를 하여 후보자군에서 3인을 선발하여 무순위로 재단에 통보하였고 재단은 추천위의 결정을 재단형식에 맞추어 받아들여 3인 중에서 서문호 후보를 낙점하였던 것이다. 즉, 추천위의 결정을

-
- 2) 표현에 유의 바란다. 항상 재단이 즐겨 쓰는 “모시는” 것이 아니라 “고르는” 것이다. 항상 긴 줄이 있으니 고르는 것의 선택지는 따르지 않는다. 긴 줄은 특성상 대략 두 부류다. 한 부류는 “골라 주세요.”의 부류이고 다른 한 부류는 “나를 골라야 할 이유”를 대는 부류이다. 물론 전자의 부류가 압도적이다. 현대 문제는 교수사회가 원하는 총장의 부류는 “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모셔야 할 이유”를 당당하게 댈 줄 아는 인사라는 점이다. 재단은 물론 이런 인사를 삼고초려(三顧草廬)의 예를 갖추어 모실 의향이 눈꼽 만큼도 없다.
 - 3)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미국인들이 헌법해석에 있어 바이블로 여기는 <연방교서(Federalist Paper)>를 일독하시기 바란다.
 - 4) 당시는 사립학교법 통과 전이라 교내 정식기구인 교수회가 없었고 대신 임의기구인 교수협의회가 존재하였다.

재단 공고 양식에 맞추어 내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써 형식 상으로는 재단의 절차를 밟은 것이 되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추천위의 선택을 받아들인 암중모색의 묘수라는 꿈을 부린 것이다. 하여간 이리도 형식논리에 집착하는 것을 두고 혹자는 이사장의 고집 혹은 법률 전공자⁵⁾(?)로서의 자존심이라고 후하게 해석하는데 저간의 행동들을 오래 경험하다보면 실제로는 재단의 대학 지배를 위한 꿈수로서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현란한 조향과 규칙들은 한꺼풀 벗기면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음이 확인하다. 그 의도가 너무 뻔하여 알아듣기 쉽게 쓰면 한 페이지면 될 것을 요상한 법률 용어를 들이대가며 대 여섯 쪽으로 늘리는 재주는 참으로 대단하다.

당시 회의록에 근거하여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자. 교수협의회는 2002년 학내 제 단체간 협의 하에 완성된 <총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절차(안)>에 따라 각 단과대학별로 8인의 추천위원을 선임하였다. 아울러 직원 노조 대표와 병원 노조대표 각 1인, 그리고 총동문 대표와 학생대표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추천위원의 면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대 신용백(현재 정년퇴임), 정통대 홍석교, 자연대 오수기, 사회대 강명구, 경영대 이주희, 법대 김병기(현재 중앙대 재직), 의대 김선용, 직원 노조 고병수, 병원노조 송응준, 총동문회 이철원, 총학생회⁶⁾ 장승기였다.

추천위는 2006년 2월 14일 화요일 호텔 캐슬에 있는 중식당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연장자 우대의 원칙에 따라 공대 신용백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실무 총괄 집행간사로서 사회대 강명구 교수를 선임하였다. 제 1차 회의에서 총장후보 추천을 위한 일정과 면접시 질문할 설문항, 투표에 관한 원칙 및 재단에 통고 형식 등을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후일 담이지만, 당시 혹 있을지 모르는 도청의 우려 때문에 즉석에서 회의실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여 호텔 측을 난감하게 만들기도 할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썼다. 그리고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들은 일정 기간 대외비로 할 것을 결의하였다.)

1차 회의 의결사항 중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추천 결과 종료시 추천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추천양식을 재단의 추천양식에 맞추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과 교협간의 암중모색을 가능케 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 사항이었다. 즉, 실질적으로는 교협이 주도한 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를 3배수로 추천을 하지만 형식은 재단의 형식에 맞춤으로서 재단은 모른 채하고 개별접수로

받아들여 3배수 추천자중 총장을 임명한 것이다. 추천위로서는 재단에 대한 배려였고 또한 재단이 함부로 내치기 힘든 전술적 후퇴이기도 하였다.

2006년 2월 16일 오후 5시 접수가 마감되자마자 곧 이어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류심사(제 1차 심사과정)를 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아울러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제 2차 심사인 인터뷰 과정을 위한 설문과 상세한 질문들을 확인 하였다. 다음 날인 2006년 2월 17일 오전 9시부터 올곡관 1층 영상회의실에서 1차 선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심사를 실시하였다. 각 후보자 당 30여분 내외의 시간이 주어져 이 시간 동안 대학 발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과 대학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 등을 청취하였다. 해외 출장 중인 후보자는 국제전화로 연결하여 화상 면접을 하였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인터뷰는 추천위원들만 참석한 비공개 회의였고 후보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대학 본부 측은 국제전화를 통한 인터뷰를 위하여 통신설비를 설치 및 제공하였고 기타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주었다. 재단의 암묵적 승인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투표는 학생대표를 제외한 10인이 각 후보자에 대하여 가부(可否) 형식으로 의사를 표시하였다. 최종 집계를 하여 가(可) 투표를 많이 획득한 후보자순으로 3인을 무순위로 추천하였고 그 결과를 재단에 통보하였다. 즉, 최종후보자 3인의 총장후보자 지원서를 취합하여 추천위원장이 법인 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고 그간의 경위를 소상하게 밝혔으며 아울러 대우학원 이사장 앞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당시 추천위원장이셨던 신용백(명예)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재단의 이영현 상임이사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재단이 임명한 적이 없으므로” 추천서를 수령할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한다. 이에 신용백 위원장이 “무슨 소리냐, 이 추천위원회는 김철 총장 직무대행 시절 교협과 협의 하에 구성된 기구이다. 내 임무는 공식 회의를 통하여 정식으로 선출된 후보자를 재단 법인 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니 받아야 한다.”고 서류를 밀어 넣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서류가 접수되고 3인의 추천 후보자 중 재단은 서문호 후보를 아주대학교 제 12대 총장으로 낙점하였다. 마지못해 받아들인 형식을 띤 교협추천 후보자 명단을 손에 쥐고 재단은 재단대로 교협은 교협대로 이심전심(以心傳心)에 염화시중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5) 윤원석 이사장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

6) 총학대표는 읍저버로서 발언권은 주어졌으나 투표권은 없었다. 이런 결정에 대하여 총학대표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돌이켜 보니....

짧은 글에서 (2002년 안에 근거한) 2006년 총장 선출 방식을 현재 재단이 일방적으로 공표한 선출안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하지만 어렵지 않게 가장 큰 차이점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유사점이다. 재단의 무능과 정책 실패가 있다하더라도 결코 교수대표들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이다. 2006년 당시에는 전임 총장의 무능과 불화관계의 심화, 그리고 연이은 외부총장 영입 (결과적) 실패로 인하여 재단은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었다. 그렇다고 불쑥 교수들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었다.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재단은 그대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노회함은 간직하여 형식적으로는 받아주지 않았으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이번에 한하여 두루뭉술하고 은근슬쩍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에 차이점은 2006년의 경우 형식은 재단이 취하고 내용은 교수사회가 취하였다면 2010년의 경우 형식은 재단이 양보하는 척하면서 내용은 완벽하게 재단이 가진다는 사실이다. 시혜 베풀 듯이 추천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찌고 하면서도 막상 추천위가 추천을 하면 재단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올 때 까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일부 단과대학이 반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대나

의대 등 교수수가 많은 단과 대학이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더 나아가 의심나는 사항들은 이사장이 정한다고 하였다. 땅 짚고 헤엄친다는 속담이 딱 이사장의 영법(泳法)이다. 아무리 잘못해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꼭 물어야하는 경우 책임을 묻는 방식은 자기가 정한다면 누가 이사장 못하나? 지금 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이 딱 그렇다.

돌이켜보니 2006년 당시 그나마 그 정도라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유야 어떻든 총장 후보를 지원한 교수들이 ‘용감하게도’ 교협이 주관한 추천위원회로 지원한 것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 지금은 어떤가? 모든 단과대학이 재단이 제안한 추천위원회에 교수대표를 보내지 않기로 결의하지 않는 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가능성을 점쳐보니 이제는 내가 이 공공의 시장바닥을 떠나 나의 사적 영역으로 조용히 귀환해야만 할 날이 곧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다. 실망이라는 이름의 이해관계가 열정을 억누르는 순간이다. Adios!

이수훈 총장 선임 경과 및 결과

의과대학 이재호 교수

제 13대 총장 선임과 관련해서 교수회는 총장 선임 때마다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우고,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좋은 총장을 뽑기에 적절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자 총장선임 규정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우선 총장선임안 TFT를 만들어 2009년 9월 총장선임 규정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2009년 9월 30일 교수회, 학생회, 양대 노조, 동문회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더불어 재단 상임이사에게 초안을 직접 전달하고 그 취지와 개요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재단의 이해와 관심을 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공청회 이후 공청회 이후 각 단체와 별개로, 혹은 함께 초안에 대한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동문회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9년 10월 11일 교수회의장, 총학생회장, 직원노조위원장, 병원노조위원장이 날인하여 재단 사무국에 합의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재단 이사들에게도 교수회 의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여 좋은 총장을 모시기 위한 고민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2010년 1월 12일 일방적으로, 그것도 총장선임 프로세스에 대한 이사회에서의 사전 논의도 없이 총장선임 공고를 대학 홈페이지

이지에 올렸다. 이는 학내 구성원들의 충정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였으며, 마침 2010년 새해 벽두에 발각된 박종구 전 차관의 공고 이전 추천인 모집 시도와 더불어 학내 제 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2010년 1월 13일 교수회 의장과 양대 노조 지부장 명의로 재단의 차기 총장 선출 방식을 거부하는 입장을 천명하게 되었다. 이는 2010년 1월 18일부터 시작된 학내 원로, 중견 교수 명의의 성명서 발표와 서명으로 이어져 마침내 154명의 교수들이 실명으로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열흘의 공고 기간과 단 이틀의 접수 기간 후 총장 후보자로 교내에서 세 명만이(박종구 전 차관, 의학부 박기현 교수, 기계공학부 이수훈 교수) 등록하였으며 이후 교수들은 플래카드 시위 및 화요보고대회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거듭 천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2010년 2월 1일 이사회를 열고 세 명의 후보자로부터 각 10분씩 발표를 듣더니 이수훈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어(10표 중 9표) 아주대학교 제 13대 총장으로 내정하였다.

줄속과 무원칙으로 일관된 재단의 일방적인 선임 과정을 통해 임명된 이수훈 총장은 선임 바로 다음 날부터 심각한

연구진실성 위반 의혹에 휩싸이게 되었다. 교수회는 개인 교수가 아닌 총장 내정자의 윤리에 관한 사안이었기에 TFT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대단히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학교가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게 하기 위해 당사자와 대학 본부, 그리고 재단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내정자의 자진 사퇴 혹은 내정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재단은 무책임하게도 내정자의 총장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 결과 총장이 임명후 18일 만에 사퇴하는 아

주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일말의 반성 없이, 그리고 교수회의 총장 서리 임명 요구에도 귀를 닫고 1년여 간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총장 후보로 지원한 인물인 박종구 전 차관을 총장 직무 대행으로 임명함으로써 지금에 이르기 까지 9개월간 차기 총장 선임 운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당사자는 이러한 상황을 노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필연적으로 14대 총장 선임 과정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대학교수로 산다는 것

경영대학 구형진 교수

저는 아주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커다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남짓 근무하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한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학문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한 편의 글을 쓸 때, 자신의 영혼을 담아서 쓰라는 충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스스로 학문하는 자세, 글 쓰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산의 반 능선을 넘긴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들면서, 무엇보다 버리에 떠오르는 것은 ‘삶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삶의 가치에 대한 생각은 “무엇을 후세에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나서, 언뜻 발견하는 것은 자신이 정말 축복받은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세를 가르친다는 것은 자신의 지적 DNA 중 하나를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니, 교수직은 자연스레 후세에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직업입니다.

저 역시 지식과 실천의 문제로 고뇌하여 보았던 사람입니다. “철학자의 임무는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라는 한 철학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던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는 근로자, 기업인, 사회운동가, 정치인 등에게 존경의 염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식과 가치를 후세에게 상속하는 역할인 교수직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과 경외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의 모든 활동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우리의 삶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은 교실 안에 국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하는 모든 행위, 즉, 연구하는 것, 프로젝트 수주하는 것, 학회활동 하는 것, 학교 밖에서 기업체나 지자체 자문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하는 것, 그리고 교수회의 일원으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 모두가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는 학생들에게 창

의적인 사고방식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일 것입니다. 단지 기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과정을 통해, 학문후속세대 또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교수가 연구자로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의 시위 참여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치는 일이고, 또한 부당하고 부정한 일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교수직이 성직(聖職)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시시대부터 성직자들은 사회에 공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정신적인 가치를 보수하며, 후세대에 그것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세 이후, 신화적 세계관이 합리적 세계관으로 대체되면서, 성직자들은 인간 사회와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서, 종교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역할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 반면, 대학과 교수는 이성의 빛으로 사회를 밝히는 성스런 위치로 격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대학 역시 시장원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교수가 지식생산 노동자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역사를 볼 때, 가르치는 사람을 단순한 생산자로 여긴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유교에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역할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을 윤리적 관습으로 만들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간·사회·자연에 관한 지금까지의 지식과 가치를 보존하고 재해석하여 후세에 전달하는 '스승'의 역할을 인간과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며 경제활동과 배분의 규범과 원칙을 정하고 실행하는 '통치자'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인 '가족의 장'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존경의 염을 표하는 것을 사회적 전승(social mores)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근대화와 산업화를 겪으면서 많은 유교적 가치들이 붕괴하였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초등·중등 교육이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전통적인 스승에 대한 우리 사

회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존경의 엄마져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에토스(ἦθος)로 표현되는 윤리적 관습은 단순히 지성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정신의 초점(focal point)역할을 합니다. 특히, 윤리적 관습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와 결부될 때, 이는 파토스(πάθος) 즉 감정을 자극하여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동인을 부여합니다. 일상생활에 바쁘다가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 앞에서 하염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은 부모님의 기억을 떠올릴 때 우리의 에토스와 파토스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에토스와 파토스의 작용, 그리고, 거기에 로고스(λόγος)의 이성적 분별력을 합하여 그리스인들은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영혼은 몇 가지 상징들을 초점으로 가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스승에 대한 기억들이 상징이 되어 영혼 깊숙이 저장되고 기능합니다. 이러한 상징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의 정신을 시원하게 하고, 고향처럼 우리의 삶에 돌아갈 곳이 있게 합니다. 가르치는 직분, 종교적인 직분 등에 대한 에토스가 붕괴하면 우리의 삶은 초점을 잃게 됩니다. 돈, 권력, 섹스 등이 이러한 에토스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등교육의 붕괴에 대하여 우려를 갖는 이유도,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도덕적 상징이 흔들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대학은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옛 선비의 정신을 가진 분들이 학문과 교육으로서 대학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교수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이분들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봉착한 아주대학의 문제는 바로 성직으로서의 교수직이 도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바쳐 학문을 하여 일가를 이룬 분들을 모시는 '석학초빙 특별임용' 제도가 설립자의 사돈이자 교과부 차관을 지낸 사람을 정년보장 교수로 임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며 승진의 사다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오르고 계시는 신진교수님들을 좌절하게 만든 일이며, 자칫 '우리 대학사회에서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힘과 권력을

쫓아야 하는 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도록 만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옛 선비들은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다'고 저항하였습니다. 몇 분의 교수님께서 이런 일이 발생한 이후 거부의 표시로 보직을 던지셨던 것은 옛 선비들의 저항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정에 교수회의 플래카드가 2년 정도 계속 걸려 있습니다. 혹자는 '너무 과격한 표현이다. 교수들의 격에 맞지 않게 과격 시위, 노동 쟁의 등에서 볼 수 있는 구호가 걸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무언가 생각해 봅니다. 플래카드를 내거는 것은 소극적인 의사 표시에 불과합니다. 헬레니즘 시대, 시리아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과 왕의 조상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을 때, 유대인들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 섰다'고 외치며 목숨을 걸고 항쟁하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총학생회의 체육대회 또는 선거공고 플래카드가 앞에 걸려 교수회의 플래카드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교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교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의 훼손과 붕괴의 징표일 따름입니다. 젊은 치기인지 계산된 횡방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총학의 막무가내 식 권리 행사 뒤에 가려진 교수회의 외침이 불의에 저항하다 끌려가는 선비의 초라함 같다는 생각에 마음에 그늘이 집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프로젝트 몇 건 또는 건물 몇 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줄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정신적, 도덕적 가치이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에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아주대가 '인간다운 배움의 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영혼 없는 동물들의 모임으로 전락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 아주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함을 경험하는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 책임과 파렴치가 활개를 치는 불법천지

경영대학 독고윤 교수

윤원석 씨가 이사장으로 부임한 1998년 이래 재단이 임명한 총장 6명 중 5명이 임기를 못 마치고 도중하차 하였다는 사실은 총장선출과정이 한마디로 '영망'이었음을 드러낸다. 표절을 일삼던 사람들마저 그제 어찌냐며 총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이들을 통해 학교에 온갖 해악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과조차 안하는 윤원석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는 참으로 무능할 뿐만 아니라 파렴치하다.

I. 윤원석 이사장의 몰상식

지난번 총장선임절차의 특징은

1. 구성원들로부터 총장선출절차에 관해 동의조차 얻지 않았음.
2. 2010년 3월 1일에 취임할 차기총장의 후보등록을 접수 하겠다는 공지를 1월 12일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로그인해

야만 볼 수 있는)에만 올리고, 1월 21일에 후보접수를 마감했으며, 며칠 후에 열린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하였음.

3. 속전속결 선출과정에서 구성원과 총장후보자 간에 소통을 아예 봉쇄하였음.

4.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검증도 전혀 없었음.

5. 절차를 결정하는 과정이 사립학교법과 학교정관을 위배하였음 (아래에서 다시 논의함).

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는 일도 아닌데, 열흘 미만 학교 홈페이지에만 공모하고, 며칠 있다가 연 이사회에서 자질검증조차 없이 총장을 선출하였으니, 윤원석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가 대학총장의 역할과 상징에 관해 가진 인식이 천박하고 몰상식한 점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윤원석 이사장의 인식이 천박하고 몰상식하지 않다면, 이분의 악의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우리가 정상적인 총장 선출절차를 원하는 이유는 훌륭한 분들이 총장직에 많이 지원하고, 이 분들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을 총장으로 선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총장으로 적격한 분들이 아예 지원을 안 하거나 못 하고, 천박하고 몰상식한 사람이나 총장직에 지원하는 역(逆)선택 절차를 만들면 원하는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계산이 있었다면, ‘엉터리’ 총장선출 절차는 천박한 인식의 결과가 아니라 악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이다.

II. ‘법, 법’하시는 윤원석 이사장의 뻔뻔함

사립학교법 제16조와 우리 대학의 정관 제24조 제2항 제5호는 “이사회는 총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소위 총장을 선출했다는 2010년 2월 1일자 이사회 회의록은 지난번 총장선출절차가 이사회 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사회 회의록이 공지되자마자 총장선출절차가 불법했음을 2월 17일자로 지적하였지만, 이에 대해 지금까지 윤원석 이사장은 아무런 해명이나 회신이 없다. [※ 참고로 이수훈 씨를 총장직에서 면직시킬 때도 이사회 의 심의 . 의결이 없는 위법한 절차를 밟았다. 관련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윤원석 이사장이 ‘이수훈 씨의 사직서 수리’만을 보고했을 뿐이다.

이사장의 부당한 의사결정에 관해 구성원의 항의가 있을 때마다 윤원석 이사장이 즐겨 하는 말이 있다. “나는 법대로 했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번 총장선출과정이 불법하고 부당하다는 구성원들의 지적이 빗발칠 때도 이사장은 “법대로 했다”며 당당했다. 그런데 ‘법, 법’하며 큰소리치던 윤원석 이사장에게 무슨 법 제 몇 조, 제 몇 항을 위반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그 순간부터 이 분은 묵묵부답 자세로 돌변한다.

우리는 이처럼 뻔뻔한 윤원석 이사장을 여러 차례 보아왔다. 학교가 박종구 직무대행을 불법하게 교수로 채용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사장은 모른 척하고 있다. 아무나 교수로 임용하고, 아무에게나 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불법의 수준을 넘어 학교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윤원석 이사장은 모른 척 하고 있다. 교비 수백억원을 불법하게 투자하고, 투자손실을 감추는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범죄행위가 들통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강 넘어 불구경’하고 있다. 불법투자나 분식회계가 대우 출신 윤원석 이사장에게는 아무리 익숙하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갖고 농간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모른 척하고 계시니 해도 해도 너무하시다. 자신이 임명한 총장의 상습 표절 행위쯤이야 윤원석 이사장에게는 ‘덕망 있고 훌륭한’ 행동으로 비춰지나 보다. 학교 법인은 교육용 자산이나 수익용 자산 외에는 보유할 수 없다”는 법이 있다. 설령 법을 몰라도, 재단이 학교에 납입해야 할 법정전입금은 내지 않으면서 골프장 회원권을 산 것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할 텐데, 이쯤이야 윤원석 이사장에게는 대수롭지 않은가보다. 학교가 파렴치한 잡범 수준에서 담대한 강도수준까지 다양하게 저지른 불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사장은 묵묵부답일 뿐이다. 책임을 지기는커녕 파렴치할 뿐이다. “법대로 했는데, 아니면 말고”가 윤원석 이사장의 기본 입장이다.

III. 차기 총장선출절차도 또다시 엉터리 : 해피망측의 극치

이번에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만 공지한 차기 총장선출절차에 관해 길게 말할 필요조차 없다. 지난번과 비교해 더 악랄하고 교활할 뿐이다. 총장선출절차가 부당하다는 교수회 성토가 높아질수록 총장지원자 수는 더 줄어들 테니까 윤원석 이사장에게는 바람직하다는 사실만을 재확인할 뿐이다.

차기 총장선출절차의 핵심은 위원회가 얼마 안 될 지원자 중 무순으로 추천한 3인의 총장후보를 이사장이 거부할 수 있고, 이사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위원회는 남은 후보들 중에서 3인을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해피망측하다. 결국 적격성에 대한 심사도 없이 6인의 총장후보 중에서 내 맘대로 뽑겠다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총장으로 만들겠다는 속셈 아닌가? 과연 제 정신을 가지고 이런 엉터리 같은 총장선출절차에 참가할 사람이 있을까?

IV.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사회에게 고함

우리 대학의 이사 중에 대우 출신은 그렇다고 치자. 분식회계와 대출사기로 확정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가 사면된 사람도 이사 중에 계시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이사 중에는 서울대학교 전 . 현직 교수도 세 분이나 계시지 않은가. 나는 이 분들에게 당신네 서

울대학교에서도 총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엉망’이냐고 묻고 싶다.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순위자들을 후보로 올리라고 강제한다면, 당신네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그런 ‘엉터리’ 선출절차를 순순하게 받아 들이겠는가?

V. 교수회 회장단에게 고함

정상 대 비정상 간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선의 대 악의 간에도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치료는 할 수 있어도, 협상은 할 수 없듯이 말이다.

소식

I. 차기 총장 선임

차기총장 선임제도에 관한 재단과 교수회 간의 협의가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한 번의 직접 만남과 총동문회장을 매개로 한 여러 차례의 간접적인 대화를 통해 진행되었던 협의 중 재단은 심사위원회가 아닌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양보하고 교수회는 재단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양보하여 핵심 issue에서 의견 접근을 보는 결실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issue에 있어서는 전혀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없었다. 재단은 “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양보했으니 나머지는 재단의 뜻을 존중해 달라”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교수회는 “그 외의 사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하자. 대신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재단의 초안 작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재단은 11월 22일(월) 초안이 아닌 최종안을 전달해 왔으며, 이후 협의의 노력이 무산되고 11월 26일(금) 최종안이 공고되었다.

II. 기타 현안

가. 펀드 관련 감사 진행 ;

예정되었던 교과부 감사일자가 늦춰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얼마나 지연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외부감사 진행 소식 때문에 대학평의원회에서 진행되던 내부감사 진행 관련 논의가 중지되었으며 이에 관해서는 향후 외부감사 결과를 보고 재론하기로 한 바 있다.

나. 박종구 전차관의 정교수 임용 과정의 불법성에 관한 교부 탄원 ;

아직도 최종적인 답이 오지 않고 있다. 교과부의 입장이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계속 답변 요구를 하고 있다. 그가 총장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자신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

VI. 동료 교수들에게 고함

우리 대학이 권위와 자존마저 상실하면 우리가 바라는 대학의 미래는 없다. 대학의 자존과 권위를 해치는 어둠의 힘부터 걷어내야 한다. 어둠의 힘에 맞서 대학의 권위와 자존을 수호하려면 희생과 비용도 치러야 한다. 내가 해야 할 노력을 타인에게 미루는 무임승차는 우리를 결코 인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어둠의 힘이 우리 대학에 드리우는 그림자만을 더 크게 만들 뿐이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학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어둠의 힘에 맞서자.

교수회는 두 차례의 대의원회 (11월 23일, 12월 2일)와 한 차례의 공개 토론회(11월 25일)를 갖고 교수회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논의 결과 대의원회는 재단의 차기총장선임안이 형식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문제점이 많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전체 교수들의 중의를 구하기 위한 전체 교수투표를 12월 6일-8일 실시하기로 하였다. 투표는 재단안을 받아 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교수회의 기본 입장을 근간으로 한 재단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대의원회의 결의 사항을 투표 문항에 넣어 재단안을 거부할 때의 교수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수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재단이 집중적인 협의에 임하도록 압박을 가해 합의를 이끌어 보자는 것이 교수회 대의원회의 복안이다. 교수들의 투표 참여 정도와 그 결과에 따라 교수회의 향후 대응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면) 300명의 교수들을 만났으며, 많은 교수들과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만나서 한 얘기 중에는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니 우려했던 대로 차기 총장 임명과 관련하여 일종의 사전 선거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교수 임용, 부총장 임명 과정의 문제점과 더불어 교수회가 반대하던 총장직무대행 임명을 강행한 재단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다. 자연대학 학장 사퇴 건 ;

11월 초와 비교하여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소식이다. 누구의 책임일까?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편집위원회

2010년 마지막 호를 발간하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구형 건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성직(聖職)에 비유될 정도로 신념과 권위 그리고 도덕적 우위에 서야 할 교수사회가 조롱 당하고 있습니다. 교수회가 도서관 옆 큰 길에 내 건 현수막 말입니다. 세 개를 내걸었는데 제자들인 학생들의 대표라는 학생회가 “이 자리가 교수회의 전유공간이냐? 떼려면 떼어봐라.” 하며 덧대듯이 걸어 놓았습니다. 올라가 떼어내려던 마음이 치연하여 굴욕감에 몸 둘 바를 모릅니다. 교무회의 석상에서 “학생회가 잘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보직교수를 떠올리면 그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은 법에 앞서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 간의 도덕적 권위가 우선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은 당신 차례일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울곡관 동편에 건물 가장 가까운 곳에 이사장 전용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차번호까지 바닥에 새겨 놓았습니다. 몇몇 교수들이 이 공간에 일부러 주차를 하였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이사장께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전달사항이 있다. 법 법 하 시는데 이 자리가 이사장 전용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덕적 권위가 법에 앞선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대접하시는 만큼 대접 받으십시오. 이 자리 지키려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 동분서주하는 직원 분들께 송구하여 이제 그만 델 터이니 서운함 푸시고 잘 대보시라. 학생회가 후안무치하다고 어찌 교수까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방학기간 중 휴간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탁류청론>은 격한 흠탕물에 난파합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꼭 아주대학교 교수들의 수준만큼 존재 가능한 듯배입니다. 그래도 인사드립니다. 근하신년.

- 탁류청론 편집위원회 일동 -

